

가 교통의 대간선을 이루고 있다. 또한, 배천선(白川線 : 장방-은빛), 웅진선(甯津線 : 해주-웅진), 은률선(殷栗線 : 은파-철광), 장연선(長淵線 : 수교-장연), 부포선(釜浦線 : 신강령-부포) 철산선(鐵山線 : 철산-서해리) 등이 있다.

도로 사정도 북한에서는 가장 잘 정비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주요 도로는 해주-재령-사리원이 으뜸이고, 해주-장연-룡연, 해주-배천-개성 등을 이어주는 도로가 중요하다.

명승지로는 구월산(九月山)과 장수산(長壽山 : 593m), 수양산(首陽山), 석담구곡(石潭九曲) 등을 들 수 있다.

구월산(북한명소 6호)은 황해북도에서 최고봉(954m)을 이루며 일찍이 단군(檀君)이 내려오신 성산이다. 단군이 나섰다는 단군굴(檀君窟)이 있고, 단군을 모시는 구월산 삼성사(九月山三聖祠)가 있다.

구월산에는 구월산성(九月山城)이 있으며 6·25전쟁이 끝난 후에도 반공유격대인 '구월산 부대'가 끝까지 항전을 한 곳이기도 하다. 산 중턱에는 우리나라 33 본산의 하나인 명찰 패엽사(貝葉寺), 월정사(月精寺), 정곡사(停穀寺) 등의 큰 절이 있다.

장수산은 '황해금강(黃海金剛)'이라는 별명을 가진 명산이다. 수양산(首陽山 : 899m)은 해주(海州) 가까이 있는 경관이 빼어난 산이다. 수양폭포, 수양산성, 해주석빙고 등의 명승지와 고적이 있다.

석담구곡(石潭九曲)은 조선 시대 중종~선조 때의 이율곡(李栗谷)이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를 지은 곳이다. 이곳에는 율곡의 소현서원(紹賢書院)이 있다.

이 외에도 몽골포, 구미포 등의 깨끗한 사빈이 펼쳐져 있어 해수욕장으로 환영을 받는다.

■ 개 관

북한에서는 황해도를 황해남도과 황해북도로 나눴다. 2010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 황해북도의 면적은 약 8천154km²로 전국도의 3.6%, 북한 면적의 6.6% 가량을 차지하며, 인구는 약 163만3천 명으로 북한 인구의 6.6% 쯤 된다.

그러나 2010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상원군 등 평양시의 4개 군이 포함돼 면적과 인구가 상당히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평양시 4개 지역의 면적 1천100km² 정도가 황해북도에 포함됐으므로 2010년 현재 면적은 9천254km²로 추정된다.

이 계산대로라면 황해북도 면적은 전 국토의 4.1%, 북한면적의 7.5%가 되는 셈이다. 인구도 평양시의 줄어든 인구 50만 명 정도가 황해북도에 포함돼 213만3천 명으로 대폭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럴 경우 북한 인구의 8.6%를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2011년판 '조선중앙년감'에는 2010년판과 달리 강남군이 평양직할시에 속한 것으로 표시돼 있다. 강남군은 1년 만에 황해북도에서 다시 평양직할시로 복귀한 셈이다. 이에 따라 황해북도의 인구와 면적도 2010년보다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서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각 도의 현지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를 설치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후 2013년 5월에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11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14개 경제개발구를 지정 발표했다. 황해북도에는 신평군 평화리 일부 지역에 '신평관광개발구'를, 송림시 서송리 일부 지역에 '송림수출가공구'를, 개성시 일부 지역에 '개성첨단기술개발구'를 각각 개발하기로 했다.

■ 연 혁

한(漢)이 한반도에 4군을 두었을 때, 락랑군에 속했다가 나중에 고구려 땅이 됐다. 고구려가 망한 후 평양에 일시 설치된 당의 안동도호부에 소속됐다가 곧 신라의 영토로 수복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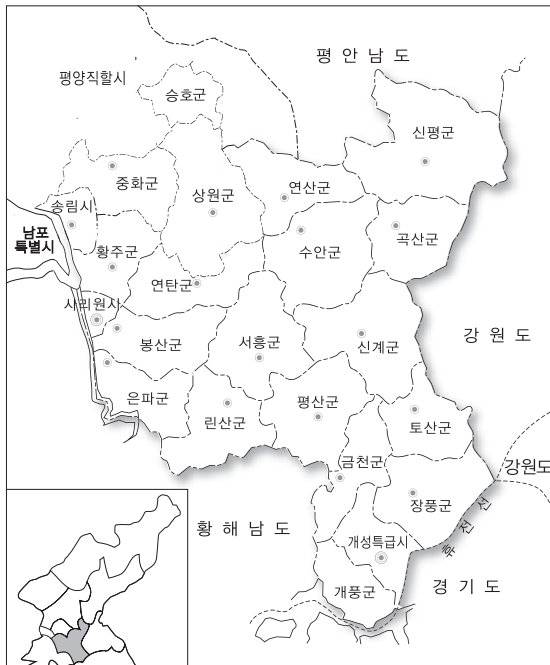
고려 성종(成宗) 14년(995)에 전국을 10개 도로 나누면서 관내도(關內道)에 속했다가 그 후 서해도(西海道)로 바뀌었다. 한 때 북부 지역이 원(元)에 점령되기도 했으나 충렬왕 4년(1278)에 원을 몰아냈다.

조선 태조 4년(1395)에 풍해도(豊海道)로, 태종 7년(1407)에 다시 황해도로 개칭되고 한때 좌·우도로 나누기도 했다. 광해군 때 황연도(黃延道)라 하다가 다시 황해도로 바꿨다. 고종 30년(1893)에 도를 폐지하고, 해주부에 속했다가 고종 32년(1895)에는 황해도로 고쳐 도청을 해주에 뒀다.

1951년에 개성시(開城市)와 개풍군(開豊郡)을 병합해 개성지구(開城地區)를 신설해 중앙 직속으로 관리했다. 1954년 10월 황해도를 황해북도와 남도로 분할하면서 경기도의 개풍군과 장단군(長湍郡)을 황해북도에 편입시켰으며, 황해도 동부 지역의 13개 시·군을 19개 시·군으로 재편했다.

1955년 개성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개풍군·판문군이 개성시로 편입됐으며, 1960년에는 장풍군이 개성직할시로 편입됐다. 이후 여러 번의 행정구역 개편을 거쳐 2002년 11월에 개성시와 판문군(板門郡) 일부가 개성공업지대로 지정되면서 판문군이 폐지됐고, 2003년 6월에 개성시는 황해북도에 편입됐고, 2003년 9월에 특급시로 격하됐다.

황해북도(黃海北道)



2010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평양시의 강남군, 상원군, 중화군, 승호구역이 황해북도로 편입되면서 승호군으로 개칭됐다.

유네스코는 2013년 6월 23일 제37차 세계유산위원회(WHC)에서 북한의 개성역사유적지구(전체면적 494.2ha, 완충구역 5천222.1ha)의 세계유산 등재를 확정했다. 개성역사유적지구는 개성성벽 5개 구역, 만월대와 첨성대 유적, 개성 남대문, 고려성군관, 송양서원, 선죽교와 표충사, 왕건릉과 7개 왕릉과 명릉, 공민왕릉을 포함하며, 2004년 첫 세계유산에 등재된 '고구려 고분군'에 이어 두 번째 세계유산 등재이다.

■ 행정구역

개성특급시, 도청소재지인 사리원시(沙里院市), 송림시(松林市), 곡산군(谷山郡), 금천군(金川郡), 린산군(麟山郡), 봉산군(鳳山郡), 상원군(祥原郡), 서흥군(瑞興郡), 수안군(遂安郡), 승호군(勝湖郡), 신계군(新溪郡), 신평군(新坪郡), 연산군(延山郡), 연탄군(燕灘郡), 은파군(銀波郡), 장풍군(長豊郡), 중화군(中和郡), 토산군(兔山郡), 평산군(平山郡), 황주군(黃州郡) 등 3개 시, 18개 군, 판문지구(板門地區)가 있다.

■ 자연

황해북도의 지세는 대동강·재령강 유역(載寧江流域), 레성강 유역(禮成江流域), 림진강 유역(臨津江流域)으로 3분된다. 북쪽의 대동강·재령강 유역 지역은 평양 문화권에 속하고, 중부와 남부의 레성강, 림진강 유역 지역은 경기 문화권에 가깝다.

멸악산맥은 황해북도의 신계군과 강원도의 판교군계의 태을산(太乙山 : 681m)에서 멸악산(滅惡山 : 816m), 수양산(首陽山 : 899m) 등이 남서쪽으로 뻗어 내린다. 레성강은 상류 지역의 용암 대지를 관류하는 위라천(位羅川) 등의 지류를 합해 남류하다가 경기만(京畿灣)으로 유입된다.

남부 지역은 마시령산맥의 천마산(天摩山 : 762m), 송악산(松嶽山 : 488m) 이남의 지역이며, 임진강으로 유입되는 사미천(沙尾川), 사천(砂川) 등의 연안지역이 있는 황해북도는 대륙성 기후의 특징을 나타낸다.

연평균 기온은 사리원 10.3℃, 수안 8.7℃, 금천 10.6℃, 개성 10.7℃이다. 1월 평균 기온은 송림 7℃, 사리원 -6.8℃, 수안 -8.7℃, 금천 -8.4℃, 개성 -4.4℃이며, 8월 평균 기온은 사리원 24.8℃, 수안 23.7℃, 금천 25℃, 개성은 25.7℃이다.

연평균 강수량은 900~1,400mm로 지역적 차가 심하며, 연강수량의 50~60%가 여름철에 내린다. 첫서리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10월 중순경에, 끝서리는 4월 중순경에 내린다.

■ 산업

황해북도는 기후가 온화한 편이어서 북한의 곡창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농산물이 풍부한 지역이다. 산지가 비교적 넓어 상대적으로 황해남도 보다 벼농사는 뒤져 있다.

해방 후 농업용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00km의 수로를 건설하고, 또 4만ha의 논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서흥호(瑞興湖), 은파호(銀波湖), 신곡저수지(新谷貯水池), 연탄호(燕灘湖) 등 많은 저수지를 건설했다.

남부에서는 벼농사를 하는 농가가 많고, 단위 면적당 쌀 생

산량도 높으며 2모작을 하는 지역도 있다. 레성강 상류 지역에서는 투수성이 강한 용암대지가 넓으며 밭 면적이 훨씬 넓어 밀, 조, 옥수수, 귀리, 메밀, 콩 등의 산액이 많다.

산간 지역은 물론 평지 농가에서도 소, 돼지, 닭 등의 가축이나 기금류 등의 축산 농가와 사과, 배, 포도 등의 과수 재배 농가와 양잠 농가도 많다.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소나무 등 임산 자원이 풍부하고, 곳에 따라 난대성인 감나무, 서어나무 등이 자라기도 한다.

곡산고원(谷山高原) 일대에는 중석과 금광의 광산물이 많다. 중석광은 함경남도와의 도계에 있는 동백년광산(東百年鑛山)이 중심지인데 그 중 백년광산이 상동광산(上東鑛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쌍벽을 이루는 산지다.

금광은 수안군의 언진산(彦眞山) 주위에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안광산(遂安鑛山)과 홀동광산(笏洞鑛山)이 유명하다. 사리원 부근에는 사리원탄전이 있다. 마동(馬洞)에는 석회암이 있어서 시멘트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송림의 제철소는 1907년에 건설됐으며 제철, 제강, 압연의 일관 작업이 큰 제철소다. 사리원은 방직공업의 중심 도시로 제사, 연사, 방직, 날염(捺染) 등이 발달해 농산물 집산·가공과 함께 섬유 도시로 발달했다. 개성부근에는 한국의 현대아산이 중심이 돼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식이 거행돼 대규모 공업 지역이 건설됐다.

북한은 2006년 황해북도 곡산, 신계, 수안 등 3개 군에 걸친 총면적 420km² 미루벌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임진강으로 흘러드는 지류의 물을 이용한 '자연흐름식' 관개수로 공사에 착수해 2009년 9월 29일 220km의 '자연흐름식' 관개수로를 개통했다.

■ 교통·관광·고적

지리적으로 평양과 개성을 연결하는 통과 지역이므로 경제 발전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 평부선(平釜線 : 평양-개성), 청년이천선(靑年伊川線 : 평산-세포 洗浦), 황해청년선(黃海靑年線 : 사리원-해주), 은률선(殷栗線 : 은파-철산), 송림선(松林線 : 황주-송림) 등의 철도가 있다. 도로 중에서 평양-개성 고속도로, 평양-원산 고속도로를 비롯해 사리원, 남천, 금천, 곡산 등을 중심으로 도로가 정비돼 가고 있다.

황해북도는 경승지와 고적이 많은 편이다. 정방산(正方山)에는 성불사(成佛寺)가 있으며, 대표적인 천연기념물로는 평산군 봉탄리(峰灘里)의 대추나무가 있는데 밑동둘레 5.7m, 높이 9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추나무다.

정방산·성불사: 명소로 성불사(成佛寺)를 들 수 있다. 경승지로 알려진 정방산 남사면에 있는 이 절은 가곡의 노랫말로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져 왔다.

사리원 시내에서는 경암산(景岩山)과 경암루(景岩樓)가 대표적인 경승지로 꼽히고 있다. 사리원은 북한 농업 연구의 중심 도시여서 연구소 뜰의 백초원(白草園)은 사계절 내내 백화가 만발해 찾는 사람이 많다.

은파호·장수산: 황해북도 중앙에 있는 인공호인 은파호(銀波湖)는 황해남·북도 중부 지방과 재령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조한 인공호수다. 이 호수 주변의 장수산(長壽山)을 비롯한 서흥호(瑞興湖) 등은 관광객과 수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객이 많이 모인다.

석회암 지역: 서흥군의 남쪽에 동릉굴이나 남한의 고수동굴과 같은 지령굴(地靈窟)이라는 석회동(石灰洞)이 있다. 이 일대는 석회암 지층으로 돼 있어서 카르스트 지형이라는 특수한 용식지형(溶蝕地形)으로 지하 관광지를 이루고 있다.

신덕왕후 사지터: 조선 태조 이성계가 젊었을 때 이곳 계수리(溪水里)에서 신덕왕후 강씨(神德王后 康氏)를 만났던 집터다. 역사 교육 상 필요할 뿐 아니라 강 씨의 재지를 겸한 성품으로 조선 500년 역사의 기반을 다진 곳이라 하여 찾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도내에는 가침박달, 검쟁나무, 백리향, 으름덩굴, 홍목련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토종 식물이 잘 자란다. 이외에도 자비산, 대각산·수룡산 등에 동물 보호구가 있다.

강원도(江原道)



■ 개 관

북한의 강원도는 동해에 임하고 있으며 남한과 같은 도명을 갖는다. 해방 후에 함경남도의 원산시(元山市) 부근의 땅을 편입시켜 원산시를 도 행정중심지로 삼았다.

면적은 약 1만1천92km²로 전 국토의 4.9%, 북한 면적의 9.0% 가량을 차지하고, 인구는 약 147만7천 명으로 북한 인구의 5.9%를 차지한다.

북한은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서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각 도의 현지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를 설치해나가기로 결정했다. 이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013년 5월에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11월에 14개 경제개발구를 지정 발표했다. 강원도는 원산시 현동리 일부 지역을 '현동공업개발구'로 개발한다.

■ 연 혁

원래 우리 민족의 선주민이라 할 수 있는 예(濊)·맥(貊)의 땅인데 나중에 고구려·신라의 땅이 되면서 이들은 한민족에 동화됐다.

고려 성종 14년(995)에 화주(和州 : 영흥)·명주(溟州 : 강릉) 등을 군·현으로 해 삭방도(朔方道)라 했고, 춘천 등을 군현 아래에 두었다가 명종 8년(1178)에는 이를 고쳐 연해명주도(沿海溟州道) 또는 명주도(溟州道)라 불렀다.

원종 4년(1263)에는 명주도(溟州道)를 강릉도(江陵道)라 하고, 동주도(東州道)는 교주도(交州道)라 부르다가 충숙왕 원년(1314)에 교주도를 회양도(淮陽道)라 개칭했다. 조선 태조 4년(1395)에 강릉도와 회양도를 합해 강원도로 고치는 등 여러 차례 행정상의 변동이 있었다.

해방을 맞아 38도선이 그어지고 1950년 6·25전쟁과 3년 후에 정전협정 체결에 따라 황해도의 38도선 이남의 땅이 북한으로 넘어가고, 대신 강원도의 38도선 이북과 휴전선 사이의 땅이 한국으로 수복됐다.

1952년 12월 행정구역 개편 때 강원도는 1개 시, 15개 군의 도로 바뀌었다. 1954년 창도군에서 김화군이 갈라지고, 1991년 7월 문천군이 시로 승격됐다. 2002년 10월 금강산 일대와 통천군 일부를 금강산 관광지대로 지정했다.

■ 행정구역

도청 소재지인 원산시(元山市)가 있고, 문천시(文川市) 외에 고산군(高山郡), 고성군(高城郡), 금강군(金剛郡), 김화군(金化郡), 법동군(法洞郡), 세포군(洗浦郡), 안변군(安邊郡), 이천군(伊川郡), 창도군(昌道郡), 천내군(川內郡), 철원군(鐵原郡), 통천군(通川郡), 판교군(板橋郡), 평강군(平康郡), 회양군(淮陽郡) 등 2개 시, 15개 군이 있다.

■ 자연

우리나라 땅의 척추를 김정호(金正浩)가 백두대간(白頭大幹)으로 표현했다. 평안도와 함경도를 떠받치고 있는 랑림산맥을 이어 등골 역할을 하는 태백산맥은 골반과 대퇴골(大腿骨) 역할을 하는 소백산맥(小白山脈)으로 이어진다.

랑림산(狼林山)에서 이어져 내려와 두류산(頭流山 : 1,324m)에서 일단 멈추고 기를 모아 한달음으로 금강산(金剛山 : 1,638m)을 뛰어넘고 향로봉(香爐峰 : 1,293m)으로 이어진다.

북쪽은 함경남도에 연결되고, 동쪽은 동해에 등을 돌리고 있다. 서쪽은 멸악산맥(滅惡山脈)이 뻗어내리며 동백년산(東百年山 : 1,246m), 립암산(立岩山 : 1,107m)을 거쳐 태을산(太乙山 : 681m)으로 흘러내리다가 평안남도 와 황해북도에 이어진다. 남쪽에는 휴전선이 있다.

중앙에는 안변남대천의 수원을 이루는 추가령(楸哥嶺 : 586m)에서 남쪽으로 추가령지구대(楸哥嶺地溝帶)가 발달해 휴전선을 넘어 멀리 남서남 방향의 서울 근교까지 뻗어 내린다.

추가령지구대의 서쪽에는 마식령산맥과 동쪽에는 광주산맥의 양 지루산맥(地壘山脈)이 남아 있다. 이 지구대의 여러 곳에서 용암이 분출해 비교적 넓은 철원·평강 용암대지(鐵原·平康熔岩臺地)를 분출·퇴적했다. 이 지구대를 따라 림진강(臨津江)과 그 지류인 고미탄천(古味呑川), 평안천(平安川) 등이